

<멘토님께>

2018년 1월 30일

멘토님저가멘토님을만나서

멘토님이여기큰해즈셔잔아

요,저가처음에본지루하다,생각

하는데나중에서가미래에는적

업이사라지본걸알고너무대항

할생각을하지말자.관하는걸알

아어요,그리고저에꿈에한

바다다가가기위해서제임하지

라고.바에서운동하면꿈

에대해서한발짝더나갈

수있을거같아요.멘토님감사드

려요

이게=환

박성연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박성연 멘토님 저는 광주광역시 5기 김승관입니다.
제가 원래 왜만하면 희망강연회를 가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인 교회 무원호로 인하여 참가가 불가능했습니다.
청년 형님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자랑 멤버들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희망을 주는데 쉽지 않은데 희망을
그것도 청년 형님들에게 주신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가서 박성연 멘토님은 뵙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아랑곳이 안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박성연 멘토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에게도 좋은 희망을 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드릴것 같습니다.

안녕히계세요

- 5기 자랑 멤버 김승관 올림 -

박성연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박성연 멘토님. 전 광주광역시 부대표 임은주입니다.

아쉽게도 그날 가족과 오랜만에 약속이 잡혀서 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직접 뵙지는 못하였지만 '아랑곳'이라는 ^{차린사범 학교} ~~기관~~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청년들을 채용하고 ~~희망~~을 나누어 준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저도 나중에 ~~미래에는~~ 멘토님처럼 좋은일을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을 하고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장에 평생스승님 이신데

평생스승이 되하신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평생스승이라니

기분이 좋네요. 직접 못보해서 아쉽지만 ~~굉장~~ ~~밴드~~가 있으니 거기서

간접적으로라도 볼게요! 감사합니다!

2018.1/30

- 광주광역시 부대표 임은주 -

2008년 1월 25일 화요일 박승연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2층 멤버 3기 김민성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 사립의 생애 이생게 멘토님을 뵈기 못했어요.

형님이 들었는데 멘토님께서도 이렇듯 ^{자립형} 여관에서 청년들과
마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여생에는 대한 학교도 운영해서 마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참 아깝네요. 저의 꿈은 의사입니다.

의사라면 공부를 무엇보다 열심히 해야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사랑에 대한 여생가가 궁금했어요.

사랑이냐 각각의 재능들이 있고 그 사랑의 성격 등등이 다른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어요. 멘토님께서도 마래에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멘토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김민성 올림

2018.1.30

박성연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주 찜장 5기 안정민입니다.
청년 자립학교에서 일한다고 찜장 선생님에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때 청년 ~~자립~~ 학교 꼭 가 볼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멘토님을 찾아보고 만약에
길 가다가 보면 제가 누군지 이야기 하고 청년
자립 학교 가어떤 거지 물어 볼게요.

11/30 (화)
박성원 번도님께

지난 토요일에 방문했던 광주지역 강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평년들을 위해서 '공신 최초의 ' 청년리듬학교를 운영하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률도 높고 취직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청년들을 위해 힘써
시루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네요, 제가 사실 졸업때문에 귀가 안들려서 말씀하시는데
재대로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드오 경험이
깊으셨다고 느끼고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니다, 항상
어느새 하는 말씀은 똑같은데도 뭐 저희보다 먼저 현실을 경험한 분이시기에
말씀을 귀담아들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팅하시고 저희 연도가 되어서
강사하시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사합니다 ^^ 그리고 고맙습니다 ^^

2018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 김선영 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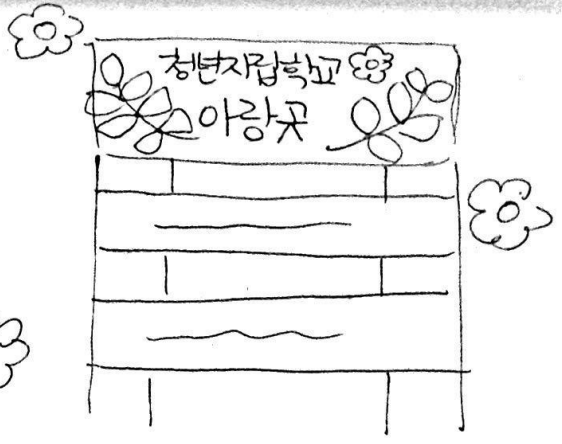
*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것.

- 일단 죽어린 불분인 '공부'라는 것을 열심히 하며 남들보다 좋은 성적으로 따낼 것.
-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바라보며 경솔한 것.
-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데 강박관념 마시리 말고 노력하기.
- 언제나 매사에 최선을 다할 것

등.....

청년자립학교 이랑꽃

김주영 멘토님이 소개해주신
타사서연
기오린 멘토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이번여행에도 참여를 했고. 갈색 체크무늬 옷을 입고 있던 여중생 양다현 이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 꿈이 바뀌고 현실함을 모르다가 쟁을 6학년 때 알게 되어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지금은 간호장교, 여단 이라는 꿈을 가지고 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서 말했던 것 처럼 책이나 인터넷으로 간접경험만 했지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여행을 통해 방법을 알게 되었고 진짜 가슴이 뛰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다시한번 더 감사 합니다. 태우터 좋은 일만 있으셨음 좋겠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2018, 1, 30 (화)

양다현 올림

정년자립학교 아랑곳 밖 성년 멘토님께

박성년 멘토님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27일 토요일에 정년자립학교 아랑곳에서 만났던
장 김형록이예요. 저번 만남을 통해 ^{전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개가 ^{있었던} ~~있었던~~
한 시를 고민을 했었는데 멘토님과의
만남을 가리키면서 여러 개가 있으면 한
번씩 하나씩 ^{하러갈게요}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평소에 대한학교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번에 갔다와서 대한학교 특히 / 간다학교에
많은 관심은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만약 글을

뜻 갖고 방향한다면 정년자립학교 아랑곳에 할까

궁금한 것도 있으니까 같아요.

인연이 된다면 다음에도 꼭 부러워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 장 김형록 올림

청년 자립학교 아랑곳  BOTTLE

박성연 멘토님 ^^
구영민 멘토님 -

잘 받았습

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번주 토요일날 청년

자립학교에 갔던 세 상을 가꾸는 자장!

"모채연"입니다. 저는 박성연 멘토님

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간짜 멘토님은 맞는

말만 하시어서 잘 이해하고 글을 이루려면

힘들어도 있겠지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 날씨가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아참! 저희가 간후에

다른곳에서 온 학생들이 있나요? 곧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2018.1.30

-모채연윤림-

To.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세상을 바꾸는 짱

김희입니다. 토요일 멘토님들은

가셨는데 정말 좋았던 문 같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정말 기쁘고 화났습니다.

꼭 다음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반대 의견은 꼭 보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날 새 초원에 웃고 다니는 모습이

입을 떠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1월 30일

- 김희 -

! 그리고!

청년 사업학교 이강근의 박성현 멘토님께
멘토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나가려는 장병
5대장대표 김태현입니다. 멘토님을 만나뵈면
시상이더볼라 부족한 실력이지만 시를 지어보았습니당.
워낙되지만 편지를 이용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아래 나무

5대장대표 김태현

하늘아래 나무 한구름

숫문세는 뱀 두산감고

기세는 등해 물결과 강구나
어기세가 너는 덧어논이 덧었구나

나는 새를 보고 날아보라하였나

새는 나는 법을 모르구나

공강나무가지지대가대주네

나무위에서 떨어지모자네는법을익히네

몇번 시도를하긴나니

월 별 잘나날구나

지금은 그나무 근처 어기가문자

나는 연습하듯 새들이무엇있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편 내리시게 주천 해투신 팜 씩어 처 비늘 해의 칼가
는 문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대장대표 김태현

박성민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박성민 멘토님

저는 1월 27일에 아랑곳에 찾아간 장의 임리홍입니다.
처음에 아랑곳에 가서 멘토님을 만났을 때에는 아랑곳이라는
곳도 별로 와 닿지 않고 대안학교라는 곳도 와 닿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그곳에서 멘토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랑곳이 무엇
하는 곳인지, 대안학교란 무엇인지, 앞으로 저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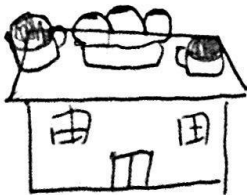
그리고 제가 했던 질문인 나의 진로를 선택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자세리 대답해
주셔서 저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만의 선택 기준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경험해 보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특히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질문에서 해주신
말씀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도움이 되는 말이 외에도 아랑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흥미로웠습니다. 그중 자신들만의
가게를 창업하는 일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의 마을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들을
직접 찾아서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 자신들의 가게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아랑곳에서 알려주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말, 아랑곳의 모습과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직접 경험해보라는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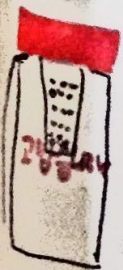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세상을 가꾸는 장 임리홍 올림

청년자립 아랑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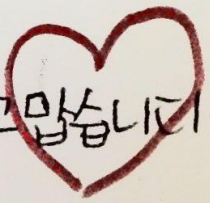
기즈연 멘토님

멘토님 소개시켜주신 박성연 멘토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찾아보았던 세상물가꾸는짱
임민지예요.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남이시켜서 하면 재밌는 것이 있구나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꼭
저는 제가 행복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것을 0개 달게 해주셔서
너무 좋기 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라곳이 있어서 너무
좋은 시설인것 같아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물가꾸는짱 임민지

To. 박성연 멘토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세상을 가꾸는 짱 박은우예요.

저는 간디 학교가 자신마음대로 놀면서 공부하는 곳이라고 .

생각만 하였지만 가보니 나의 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 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것에 관해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지능길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높고 해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꿈도 너무 많지만

저는 꼭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할 거예요.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이 많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어려움도 극복하고 할 거예요. 저는 수첩에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을 써가며 꼭 가고 할 것이예요.

그럼에만 행복하게 잘 지내셔요. 

2018년 2월 5일 월요일

-짱 은우 올림-



2018 2/5 (월)

TO. 박성연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저저번주에 짱이라는 동아리에서 여행을
온 무안 짱 김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아랑곳 학교에 갔을 때 멘토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꿈을 찾으면 그 꿈을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멘토님 이번 짱 여행으로서 좋은 경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 때

멘토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2018 2/5 (월)


간디 학교
아랑곳 <진호 올림>
세상을 가꾸는 짱

To. 박성연 멘토님

안녕하세요? 저는 무안짱 박지영입니다

■ 지지난주에 간디 학교에 갔었죠? ■

간디학교에 간뒤로 부터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점 정말 감사해요 

용기가 부족해 제가 정작 하고싶은 걸들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짱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간디학교에서 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디 학교

2018년 2월 5일

지영민

- 박성연 멘토님께 -



안녕하세요?

저는 무안장초 5올라가는 김가현입니다.

1월 25일에 갔을 때는 거기 자세히 뭐하는지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일문일답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뭔하다 보니 늦었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문일답보다 일문이답
인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질문을 하면 멘토님하고 그 옆에
계시는 사람도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떡을 먹고 마실것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추위 조심하고 안녕히 계세요!

2018년 2월 5일 월요일

무안장초 5올라가는

김가현 올림

공상강리  학교



To. 박성연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송호진입니다. ^{1월25일} [redacted] 에 가서 편지를
늦게 써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네요
아랑곳에 가서 자신의 꿈을 가는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거기서 제 꿈이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뭐하는지 몰랐는데 가서 들어보니 어디서 뭐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금산을 들릴 때

꼭 한 번은 만나러 가겠습니다. 2018년 2월 5일

송호진 올림

간디
하
아
고
고

To. 박성연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저지번쪽에 강의를
듣고 온 무안장애 이동차입니다
제가 이편지를 쓰는 이유는 저희
장애이 멘토님의 강의를 듣고 난
느낌들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멘토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하는지 대해
한글 재미있고 친절하게 설명하
주셨습니다. 여러 꿈을 갖기 위해서
즐거워 타는 마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공부도 즐기면서 해보는 새감을 듣고
마음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애 여행은 통해 마음을껏 배울 것 같습니다.
멘토님 정말 감사합니다.

2018. 2. 7 (월) • 아랑곳
간디학교

무안장애 이동차 올림

To 백성연 멘토님

아라공
아라공

안녕하세요 ~ 저는 세상을 가꾸는 짱,

하세련입니다 !! 아라공이란 공예대해해서

많은 것 알게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말씀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멘토님께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본받을 점도 많았어요 ♪

좋은 시간이었어요 ! 너무 감사했습니다 ♪



2018. 2. 5

From 세상을 가꾸는 짱

아라공

하세련 !